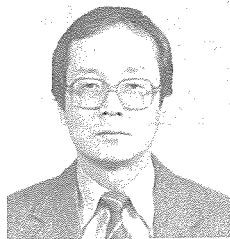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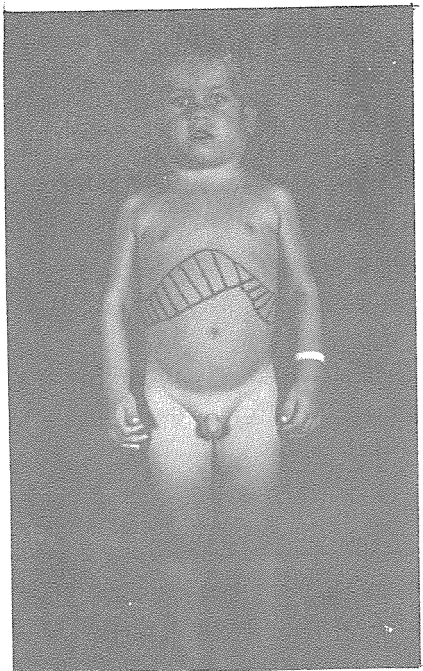


癌의 醫學 (下)



李 恒



癌이란 과연 根治될 수 있는 질환인가?

다른 질환의 의학적인 역사를 살펴볼때, 과거에 不治의 病이라고 생각되던 질환들이 이제는 치료가 되고 있다. 그 질환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해결책이란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치유율은 높아지고 수명은 길어진다. 하지만 사람은 출생시부터 이미 언제 인가는 사망할것이라는 宿命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결국은 아무리 自然死라 하더라도 어떠한 病變이나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것이며, 모든 질병들이 人間의 人生經路에서 完全히 根治될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많

은 질환은 억제될수있고 그 기본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피할수있게 되는 확율은 높아지고 있다.

癌도 역시 이같이 거의 退治되는 질환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으니,所謂 根治가 언제인가 가능하리라고 보아야 하겠다.

현재 암에 대한 많은 研究가 진행되고 있어, 여러가지 形能學的인 특징적 변화, 염색체의 변화, 생화학적, 생물리화적인 변화가 알려지고 있으나, 그 根原의인 原因이 가까운 장래에 규명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것이며, 그 언젠가는 치료대

책과 예방대책에 대폭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도약은, 물론 어느정도의 시간과 근본적인 과학발전을 필수적으로 요하며, 끊임없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의 잠재성과, 과학적, 사회경제적인 제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범세계적 지역사회에서 과학적 발견과 새로운 지식은 다행히 공용의 소유로 되어 있다. 美国같은 부유한 先進國에서도 얻지 못한 결과를 우리가 성취하겠다는 꿈은 가상한 것이겠으나 당장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막대한 비용과 경험으로 선진국에서 얻어진 지식을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더 나아가 우리가 할수있는데까지 우리 현실에 맞게 효율적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달을 올려다 쳐다 보기 보다는, 차라리 병석에 누워있는 암환자아기를 보며 완치를 기다리겠노라.”

소위 「치사병」으로 진단받은 어떤 아기의 어머니가 병석에 누운 아기 옆에서 읊은 구슬픈 구절로, 詩人이라기 보다는 현실세상에 호소하는, 미국의 한 어머니의 절규다.

과학발전으로, 우주과학이 설립되고, 달과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하여, 막대한 資力을 투자하지만, 국민 생명에 큰위협을주는 암의 진단치료에 대한 정책이 결여된 현대기술세계에 대한 도전이다.

하기는 죄없는 건강한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영양부족증도가 아니라, 기아라는 기존 최악질환으로 숨져가는 나라

들도 많은데, 암의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설을 바라는 것이 배부른 욕심이요, 무리한 요구라고 한다면, 그럴싸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人体의 질환을 이로 인해 무수한 산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 질환은 인간의 적이요, 이겨내야 할 문제요, 해결을 찾아야하는 인간과학의 숙제다. 인간의 희망은 반드시 결실을 끈질기게 보게하며, 인간의 인내와 동시에 노력을 낳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미래의 종양학은 해결점을 향하여 발전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먼곳에 있는 꿈을 찾기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향한 우리의 현실적인 종양학은 어떠한 것일까?

다행히 국내에도 암을 다루는 의료진이 있고, 약품, 기구들이 또한 있으며, 실제로 암은 진료되고 있다. 그중 소수의 피해자는 다행스럽게 완치로써 건강을 되찾아 평균수명을 바라볼수있게 되었다.

그런반면에 진단이 나자마자, 또는 이전에 이미 포기해버리는 보호자나 환자가 너무나 많다. 아무리 우리사회의 경제여건이 어렵다해도 전혀 해결책을 포기해 버리기에는 우리의 조건이 너무나도 좋다고 보고싶다.

우리현실에서 바르게 인식되고 이루어져야할 몇가지 사항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암은 의사라면 누구나 치료할 질환은 아니다. 발전속도가 가증한 오늘날의 생명과학에서 종양학은 그 첨단을 이룬다. 특수분야로서의 분화된 학문으로

서의 종양학이 존재해야 한다.

과거에 구미에서도 누구나 손을 댈때, 치료결과의 발전이 늦었으며, 암치료진의 분화설립이 있고서, 환자들이 중앙화, 집중화된후에야 진단이나 치료가 급속한 발전을 볼수있었던것은 주시할 사실이다.

여러 특수분야의 전문의들로 구성된 암의료진이 하나의 「팀」으로써 활동하는 병원에서만 최적의 암진료가 가능하다. 진단속도가 늦거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의 선후가 바뀔때 그환자의 예후나 치료성과가 전혀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성공확률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암치료 센터」가 존재하는 종합병원에서 「팀을」 구성하는 의료진들로만이 효율적인 조치를 할수 있을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며, 인간적으로 환자를 다룰수 있는 人力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며, 의료인 한사람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의료인의 「협동」에 의해서만 고차원의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불가피하게 細分化되어 가는 생명과학에서 자기만 모든것을 해낼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료인이 있다면, 현대의학을 외면하고, 자기능력을 과대망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이 아닐까 염려된다.

또한 「사회교육」이 동시에 성취되어야 하며, 이는 곧 암의 완치에 필요불가결한 「조기진단」, 더 나아가서 「예방」, 전문의료진으로의 적시의뢰, 일반인들의 활동참여, 일반의식의 정책반영을 촉구

하게하여, 많은 장애물을 해소시킬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는 역시 국민건강에 가장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진료의사」의 적극적 참여로서, 이들의 정확한 판단과 충고, 「특수 진료진」의뢰의 좀더 능률적인 의뢰과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좀더 巨視的으로 생각한다면 각병원이나 「암센터」의 독자적 활동에만 의존할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서 암치료연구가 격려되어야 하며, 정부뿐만아니라, 민간단체,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보조로써 「암연구치료」센터의 연구치료활동은 격려되고 지원되어야 하며, 암환자가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모색하고 유지할수 있도록, 모순점있는 보험제도등의 사회보조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쉽게 가능한 치료까지도 포기해야하는 암환자가 대부분인 지경에 完治法이 있으면 이들에게 무슨 소용인가? 최선의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는 복지사회의 세세대대가 이들에게도 와야 하겠다.

암진단과 치료를 찾는 수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설사 「암치료 센터」를 찾았다고해도 치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수 없는 경제여건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의 퇴원하여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데려가는 신음하는 환자들을 오늘도 본다.

옛부터 인심총기로 알려진 우리나라에 하늘을 뚫는 고층건물사이로 길에는 차량이 그득하고, 첨단산업이 활발하며 선진국을 향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필자=한양의대교수·의박〉